

Anyang Arts High School

# 안양예술고등학교



- 연극영화과
- 사진영상과
- 무용과
- 미술과
- 문예창작과
- 음악과

발행인\_ 황영남 | 발행일\_ 2019. 12. 24

발행처\_ 안양예술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5번길 40 (안양동))

전화번호\_ 031-466-8853~6 | 홈페이지\_ www.anyangart.hs.kr

## Preview 1

### 제주도에서 빛나는 추억을 만들다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2면에 계속 >

## Preview 2

### 동문인터뷰

이정은  
(2014 · 무용과 졸업)  
동문과의 만남



4면에 계속 >

## Preview 3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해진 선물의 온기 '동행'



5면에 계속 >

## 01 / Top News

합격을 축하합니다! 🏆

# 서울대학교 및 우수 대학 다수 합격!

## 노력의 열매가 영그는 과정



▲ 나연이(미술과 · 3학년) 학생, 성희진 선생님, 조건희 교감선생님, 김창현(2016 · 음악과 졸업) 동문, 우경민 음악부장선생님

2020년도가 다가올수록,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3학년 학생들의 성공적인 수시 입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중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김창현(2016 · 음악과 졸업) 학생은 “늘 목표로 생각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는 것 같아요.”라는 소감으로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조언을 덧붙였다. 또한, 음악과 우경민 부장선생님께는 “채찍과 당근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서울대학교 조소전공에 합격한 미술과 나연이(미술과 · 3학년) 학생은 서로 버팀목이 되어준 학급 친구들 덕분에 이러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공 실기와 학업 성적이 어중간하다면 하루빨리 적성을 확인하고 둘 중 한 곳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는 조언을 했다. 모의고사와 수능능력시험에서 받은 등급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라는 현실적인 충고 또한 건넸다.

해당 학생들은 재학 중 실기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손꼽았다. 그 당시 겪은 좌절감은 친구들과의 원만한 교류와 전공, 담임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고 답했다. 수업 시작 전, 전공실에서 혼자 새벽 연습을 한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며 끈기와 노력이 중요함을 매우 강조했다. 입시 생활의 최종 목표였던 대학 합격을 이뤘음에도 해당 학생들은 국제 대회 수상이나 유학을 새로운 목표로 두고 있다며 입을 모았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에 다수 합격하는 기쁜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입시를 마무리 한 3학년 학생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며, 곧 입시를 치르게 될 1, 2학년 학생들도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글 · 김다운/사진 · 황인성

2020학년도 신입생 선발

“새로운 발걸음의 시작”



▲연극영화과 신입생 선발전형 실시 모습

지난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입생 선발 전형이 진행되었다. 원서접수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였으며 합격 여부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11월 13일에 발표되었다. 신입생 선발은 연극영화과, 음악과, 무용과, 미술과, 문예창작과로 총 다섯 과에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저마다 지원한 학과에 최선을 다해 실기 고사를 치렀다. 합격한 학생들을 위한 예비소집과 신입생 예비학교 '오름'도 준비되어 있다. 안양예고 신입생들의 입학과 앞으로의 날들을 응원한다.

글 · 임민지/사진 · 김도예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제주도에서 빛나는 추억을 만들다”



본교 2학년 학생들이 9월 18일 수요일부터 9월 20일 금요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로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과별로 다른 일정을 소화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제주도를 즐기기 위한 제주민속촌, 섭지코지 등을 방문하는 일정뿐만 아니라 본교 학생들의 예술적 기량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박물관 관람 등의 일정도 함께 소화하며 학습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에는 학급 단합의 시간 및 자기 자랑 시간을 통해 본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전공과별 일정을 학과 특성에 맞게 구성하여 실시한 점이 돋보이는 체험학습이었다. 또한 체험학습을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온 2학년 학생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과 질서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고등학교 생활에서 앞으로 남은 것은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려야 할 수험생 생활이지만, 이번 체험학습이 2학년 학생들에게 있어서 지칠 때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빛나는 추억이 되었기를 바란다.

글 · 김가연/사진 · 미술과(제공)



대외 수상 내역

**연극영화과 수상실적** | <제 5회 DIMF 뮤지컬스타> 차세대 DIMF상 **3학년 박규민** <2019 젊은 연극제 제 17회 전국 청소년 연기 경연대회> 금상 **3학년 김세연 외 1명** <제 3회 동아 뮤지컬 콩쿠르> 은상 **3학년 이재림** <2019 서울예술대학교 동량 청소년 예술캠프 종합예술제> 비금상 **3학년 노세현** <제 14회 세종액팅 베스트 윈> 동상 **3학년 김채현** <제 11회 명지대학교 총장배 뮤지컬 콘테스트> 동상 **3학년 김채현 외 1명** **음악과 수상실적** | <2019 음악교육신문 성남용인지사 콩쿠르> 관악부문 트럼펫 고등부 1위 **1학년 이세현** <리틀모차르트 한국콩쿠르> 피아노부문 최우수상 **1학년 최효은** <제23회 의왕시 청소년 음악제> 피아노부문 대상 **3학년 김동준** <2019 뉴욕음악인클럽 인 서울 주최 제3회 전국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고등 3학년부 1등 **3학년 김소영** <제19회 전곡호수예술제> 피아노부문 고등부 국회의원상 **3학년 홍예진, 김정원** <2019 제14회 MIOS 전국 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고등부 2등 **김정원** 3등 **홍예진** <제41회 브람스협회 콩쿠르> 피아노부문 고등부 3등 **김정원** <2019 제3회 화성시전 국음악콩쿠르> 피아노부문 고등부 **홍예진 문예창작과 수상실적** | <제 31회 한남대학교 전국 고교 백일장> 장원 **2학년 권승섭** 외 6명 <제 48회 관악백일장> 장원 **2학년 유수진** 외 12명 <제 37회 창원대학교 전국 고교 백일장> 장원 **2학년 임효빈** 외 5명 <제 21회 효원문예백일장> 차하 **2학년 이규리** 외 2명 <제 59회 성균관대학교 전국 고교 백일장> 장원 **2학년 권승섭** 외 5명 <제 21회 한양대학교 시어짓기 대회> 장원 **2학년 권승섭**



연극영화과 | 겨울 연극제

“배움과 성장을 통한 연극”

안양예술고등학교 연극영화과 2학년 연극영화 페스티벌 장소 : 연암홀 광당	<b>오이디푸스 왕</b> 2020. 01. 06. ~ 07. 14:00 / 18:00
<b>정의의 사람들</b> 2020. 01. 02. ~ 03. 14:00 / 18:00	<b>8인의 여인들</b> 2020. 01. 10. ~ 11. 14:00 / 18:00
<b>갈매기</b> 2020. 01. 18. ~ 19. 14:00 / 18:00	<b>맥베스</b> 2020. 01. 14. ~ 15. 14:00 / 18:00

2020년 1월 2일 부터 19일까지 본교 연암홀 대극장에서 연극영화과 겨울 연극제가 시작된다. 연극제는 <정의의 사람들>, <오이

디푸스 왕>, <8인의 여인들>, <맥베스>, <갈매기> 총 5개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본교 2학년 학생들이 3학년이 되기 전 준비하는 마지막 공연인 만큼 많은 배움과 성장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김영빈/사진 · 연극영화과(제공)



사진영상과 | 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 수상

“사춘기”를 포착하다”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홀에서 KYMF(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의 시상식이 열렸다. 제19회를 맞이한 올해 KYMF는 '나에게 시작된 변화, 사춘기'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었다. '사춘기'라는 특별 주

제를 통해 나와 사회 그리고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를 청소년들의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 이번 KYMF에서는 본교의 사진영상과 손승재, 진도현 학생(서울시장상)과 윤기강 학생(교육부장관상), 김준수 학생(중부대학교 총장상)이 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KYMF가 사진영상과 학생들의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글 · 김윤지/사진 · 사진영상과(제공)



무용과 | 겨울 무용발표회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한 걸음”



2020년 1월 31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제5회 겨울 무용발표회가 열린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한국 무용, 현대무용, 발레, 댄스스포츠 전공 1, 2학년 희망자 약 60명이 참가하며 겨울방학 방과후학교 수업을 토대로 무대에 설 예정이다. 무대는 총 8개의 군무작품

과 1차 개별 작품 오디션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개별 작품으로 이루어진다. 본교 무용과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 경험으로 각자의 꿈에 한 단계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글 · 홍지수/사진 · 황인성



미술과 | 추계 야외 스케치

“화지 위로 담아낸 가을”



지난 10월 18일 미술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추계 야외 스케치가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서울대공원의 풍경을 보고 각자 주제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으로 그림을 그려냈다. 학생들은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자신이 담고 싶은 풍경과 대상을 화지 위에 표현했다. 본 활동이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 실기 실력을 비롯한 수많은 행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글 · 안다경/사진 · 미술과(제공)



문예창작과 | 추계 야외 백일장

“새로운 장소에서 특별한 작품을”



지난 10월 18일, 서울 식물원에서 문예창작과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계 야외 백일장이 열렸다. 본 대회는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학생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학생들

은 학교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풍경들을 감상하며 작품을 창작했다. '가을의 OO'라는 시제를 받은 학생들은 작품 속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목의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추계 야외 백일장이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새로운 경험과 시각이 되어 앞으로의 작품에 좋은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

글 · 김윤지/사진 · 문예창작과(제공)



음악과 | Classic Concert

“언제 들어도 좋은 소리”



11월 22일, 11월 25일 이틀에 걸쳐 본교 연암홀 강당에서 음악과 클래식 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클래식 콘서트에 선발된 학생들은 평소 모범적이며, 실기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여 무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M.Ravel la valse 등 기교 있는 곡들은 선보이며, 성악과는 한국 가곡을 선보이기도 하였다. 작곡과는 학생들이 직접 작곡한 곡을 연주하였다. 평소처럼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며 2019년도 클래식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글 · 박주원/사진 · 김도예



# 자기관리는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힘

이정은 (2014 · 무용과 졸업) 동문과의 만남

지난 11월 30일, 무용과 이정은 동문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정은 동문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예술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와 예술전문사로 재학중이다. 동시에 LDP 무용단 단원으로 활동 중이기도 하다. 제14회 서울국제무용콩쿨 컨템포러리 부문 시니어 여자 동상, 뉴욕 발렌티나 코즐로바 국제 무용콩쿨 컨템포러리 부문 시니어 여자 금상 등 화려한 수상실적이 돋보였다.



이주희 안무 <작품명 "O">



전미숙 무용단 <작품명 "BOW">

**01** 학창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은 꼭 해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신가요?

벚꽃 동산에서 사진도 찍고 구경하고 싶어요. 벚꽃이 필 무렵에는 항상 콩쿠르 준비도 하고 병원 다니느라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다른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추억이 없는 것 같아 좀 아쉽고 후회되기도 하니까요.

**02** 본교 재학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1학년 첫 '연암 예술제'입니다. 무대에 선다는 설렘과 떨림이 공존했고 방학 내내 준비했던 작품이 한 번의 공연으로 끝난다는 슬픔도 함께였죠. 1학년이라 맡은 역할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듯 혼자 있을 때마다 열심히 연습했어요. 집에서 연습할 때는 부모님께서 네가 주연이냐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무용에 재미를 느낀 때였습니다.

**03** 재학시절에 배운 것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러 종류의 실기 수업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현대 무용 스타일을 배우고 즉흥, 재즈 등의 흥미로운 수업이 많았어요. 방학 때마다 무대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을 초청해 작품을 만들고 공연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이 지금까지 어떤 안무자나 작품을 만나더라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을 보면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당황하기도, 두려워하기도

했거든요. 고등학교에서 먼저 경험해본 것이 참 다행이고 복이라고 생각해요.

**04**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저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하나씩 이뤄가려고 해요. 지금의 목표는 안무자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무용수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객관화하는 거죠. 내가 안무자의 의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동작의 정확성과 이유, 관객들에게 전달할 메시지 등 끊임없이 스스로 연구하려고 노력해요.

**05** 마지막으로 선배님과 같은 꿈을 꾸는 무용과 후배들을 비롯한 안양예고 재학생들에게 조언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키세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해요.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게 되는 순간이 오죠. 본인을 위해서 스스로와의 사소한 약속도 저버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시간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은 각기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본인의 색을 흉내 낼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선생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인생의 선배, 전공의 선배로서 소중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겠지만 식지 않는 열정으로 후에 무대에서 만나길 바랄게요. 안양예고 파이팅!

음악과 송년음악회 '동행'

# 마음 깊숙한 곳까지 전해진 선율의 온기

12월 18일에 본교 연암홀에서 안양예술고가 주최·주관한 '이웃과 함께하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송년음악회'가 진행되었다. 본 음악회는 음악으로 동행의 뜻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뜻으로 기획되었다.

본교는 안양예고가 이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학교이며,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문화적 양식을 공급하고 함께 예술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본교가 추구하는 참다운 '동행'이다. 음악회의 시작은 현재 코리안 브라스 앙상블 리더인 안희찬 연주자의 J.B Arban - Variations on 'The Carnival of Venice' 트럼펫 연주였다. 다음으로는 본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치중 연주자와 송실대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인 신민자 연주자의 C. Saint-Saëns - Danse macabre for Piano duet 피아노연주, 본교 음악과 2학년의 재학 중인 김준수, 길대현 학생의 클라리넷 연주와 김도희 학생의 피아노 3중주 연주로 꾸민 M. Mangani - Concertpiece for two Clarinets 경희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정준수 바이올린 연주자, 본교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교사로 재직 중인 정홍식 비올라 연주자, 이화여대, 경희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신지혜 첼로 연주자, 인



천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손창인(동문) 더블베이스 연주자, 본교 교사로 재직 중인 김치중 연주자의 F.P.Schubert-Piano Quintet 5중주 연주가 이어졌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2010년 영국 음악전문일간지 The Herald 별 4개 등급 수상, L.A 월트디즈니콘서트홀 공연 외 다수의 해외공연을 진행 중인 유엔젤보이스의 O Sole Mio 외 2곡으로 장식했다.

학생들은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학생들을 묵묵히 가르쳐왔던 스승의 아름다운 연주는 자주 감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음악회에 참여한 본교 교사들은 이번 송년음악회를 통해 우리는 서로 동행하는 관계이며, 스승과 제자 역시 '배움의 길'을 함께 걷는 관계임을 잊지말기를 바란다고 학생들에게 전했다. 정신없이 바쁜 연말, 창밖의 매서운 바람을 잊게 만드는 따뜻한 연주를 준비한 모든 선생님, 연주자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글 · 최연희/ 사진 · 허정현

이웃과 함께하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송년음악회  
**동행**

---

*Program*

Variations on 'The Carnival of Venice' for B<sup>b</sup> Cornet and Piano — J. B. Arban  
Tp. 안희찬

Danse macabre for Piano duet (four hands) Op. 40 — C. Saint-Saëns  
Pf. 신민자, 김치중

Concertpiece for two Clarinets and Piano — M. Mangani  
Cl. 김준수, 길대현 Pf. 김도희

Piano Quintet in A Major D. 667 (Trout) — F. P. Schubert  
IV. Theme and Variations  
Vn. 정준수 Va. 정홍식 Vc. 신지혜 Db. 손창인 Pf. 김치중

유엔젤보이스  
O Sole Mio (오 나의 태양) — E. d. Capua  
Grande Amore — Il. Volo  
바람의 노래

*Profile*

<p><b>Tp. 안희찬</b> KBS교향악단 수석 코라시니피니 수석, 아리산필 수석, 나고미힐 객원 수석, 호계예술 교수 겸임 학) 한국교향악단, COON-SELNER 오이스트, 서울교향악중주, 코리안브라스 앙상블 리더</p>	<p><b>Pf. 신민자</b> Julliard대학 학사(M.M), 석사(M.M) 졸업, Manhattan School of Music Professional study 학위유학 및 박사학위(M.A) 마취, 장에 20여개 국제악연회 출연, 세종장 모상 및 표창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감사패 수여, 제2회 아시아국제음악콩쿠르 Teaching Award 수상 학) 송실대학교 음악,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술고 졸업, 한국소련문화 이사</p>
<p><b>Vn. 정준수</b> 경희대 음대 졸업, 독일 베를린대학교의 졸업,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무악장 역임, 수형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학) 성화대 교수, 서울향교오케스트라의 악장</p>	<p><b>Vc. 신지혜</b> 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수석 졸업, 독일 뉘른베르크음대, 프랑스국립음대, 서울시립교향악단, 필리핀국립교향악단, 필리핀교향악단, 필리핀교향악단 부수석, 안화예술고, 경희대 겸임교수, 선화예술고, 예원학교, 덕원예고, 고양예고 졸업, 계원예고 전담악기교사</p>
<p><b>Va. 정홍식</b>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서울시 오케스트라 기휘 및 비올라 디플로마 학사, 안양예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및 안양예고 교수, 수원대 겸임교수, 서울향교오케스트라의 대표, 서울향교오케스트라의 사무국장, 서울향교오케스트라의 지휘자</p>	<p><b>Db. 손창인</b> 안양예고, 연세대 유대 졸업, 서울시립 음악대학 졸업, 안양예고 겸임교수 역임, 안양예고 교사로 재직 중</p>
<p><b>Pf. 김치중</b> 세종대학교 연세 음악대학 졸업, 나란 오케스트라 지휘자, 안양예고 교사</p>	<p><b>유엔젤보이스</b> 2010년 영국 음악전문일간지 The Herald 별 4개 등급 수상,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공연, 그 외 다수 해외공연</p>
<p><b>Pf. 김도희</b> 학) 안양예고 2학년 재학</p>	<p><b>Cl. 길대현</b> 학) 안양예고 2학년 재학</p>
<p><b>Cl. 김준수</b> 학) 안양예고 2학년 재학</p>	

제6회 뮤지컬 콘서트

“보고, 듣고, 느끼는 아름다운 멜로디”



12월 20일, 본교 연암홀에서 제6회 뮤지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본교 연극영화과 2학년 학생 16명이 솔로와 듀엣 등 다양한 무대로 풍성하게 꾸민 본 행사는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Bui Doi>,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 등 유명한 노래들로 구성되었다. 이번 공연이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안양예술고 연극영화과 학생들에게 꿈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

글 · 이성은/사진 · 허정현

합정역 교보문고 작품 전시

“또 다른 시작의 울림”



9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교보문고 합정점 내 아트월(Art Wall)에서 본교 문예창작과 학생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44일간 진행된 본 전시는 지난 5월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눈·시·울림-눈과 시의 울림>의 외부 전시로, 보다 많은 시민의 발걸음이 오갔다. 확장된 공간에서 또 다른 시작을 알린 이번 외부 전시를 통해 학생들은 문학에 대해 더욱 깊게 이해하며 자기 개발과 창작 의욕을 돋우는 계기가 되었다. 관람객들 또한 학생들과 같이 문학적 소양을 기르고 조금이나마 문학과 가까워지게 된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

글 · 김다운/사진 · 문예창작과(제공)

학생자치회 주관 연암 가족 대통합

“연암 가족, 드디어 대통합을 이루다!”



본교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각 전공과에게 소통 및 융합의 기회를 제공한 ‘연암 가족 대통합’이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총 3일간 본교에서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학생들이 타 전공 부스 체험을 통해 학과끼리의 친목 도모와 예술적 영감 공유를 고취 시킬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무용과는 밸런스 잡기와 턴, 점프 배우기 부스를 열어 다양한 운동의 필요성을 알려주었다. 페이스 페인팅, 동양화 일일 클래스 등의 부스를 진행한 미술과는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서로의 전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동양화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썼다. 엽서 제작과 문학 심리테스트 등의 부스를 주최한 문예창작과는 문학으로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본교 학생들이 문학을 조금 더 친밀히 느낄 수 있도록 이끌었다. 부스 체험 뒤 부여되는 스탬프를 모두 모은 학생에게는 학생자치회가 소정의 상품을 증정하였다. 본 활동으로 인해 재학생들은 학년 간의 벽을 허물고 다가간 전공 관련 멘토, 멘티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학생자치회는 공약을 이행할 수 있어서 기쁘다는 소감과 더불어 ‘연암 가족 대통합’이라는 이름처럼 각 학과가 서로의 전공을 이해하고 경험해보며 더욱 친밀해지는 경험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글 · 김다운/사진 · 생활지도부(제공)

## 수시 합격 소감



**연극영화과 박규민**(중앙대·동국대·단국대·홍익대·서울예대 합격)

꿈에 그리던 학교에 합격한 순간, 연습실에 있었던 3년 동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기뻐했습니다. 같이 연습하며 서로 지탱해준 동기들, 배우라는 길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전공 선생님들, 3년간의 담임선생님들까지, 안양예고에서 많은 인연을 만났고 길고 짧았던 모든 순간이 저에게 많은 배움의 길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모든 것들은 잠시 내 곁에 머물 뿐이다." 제가 입시 준비를 하며 읽은 책에서 인상 깊게 읽은 구절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모든 순간이 저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자극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간을 소중히,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각자의 빛나는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입시를 앞두고 계신 후배님들, 입시는 정말 고된 일이지만 잘 견뎌내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무수한 노력 끝에서 열매를 맺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사진영상과 박승원**(중앙대 합격)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진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연했습니다. 그러다 안양예고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막연하기만 했던 사진을 열심히 배워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입시 준비 기간이 길다면 길었지만, 선생님, 친구들의 도움과 격려 덕분에 그리 힘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안양예고 사진영상과 마지막 기수인 27기를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한 채 꿈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같이 고생한 27기 친구들에게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과 우리의 인연은 영원할 것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름답고 멋진 학창 시절을 만들어준 안양예고 사진영상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현순수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무용과 박준우**(한예총·성균관대·경희대·한양대 합격)

합격이라는 기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김유진 선생님께서 저에게 쏟아주신 애정 덕택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무용을 늦게 시작한 만큼 남들보다 몇 배 더 연습하며 스스로를 갈고 닦았습니다. 때로는 정말 힘들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했습니다. 더불어 담임선생님이신 이고은 선생님께서는 1년 동안 저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고 무용부장 안성우 선생님께서는 늘 든든하게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무용 전임 선생님들은 제게 아낌없는 가르침과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게 해준 안양예고와 처음 무용을 시작할 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박애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저의 꿈을 응원해주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후배님들도 자기 자신과 자신을 믿어주는 선생님을 믿고 열심히 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술과 조윤재**(홍익대·이화여대 합격)

저는 이왕 태어난 김에 하고 싶은 미술을 마음껏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안양예고 미술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어느덧 졸업할 시기가 되고 꼭 다니고 싶었던 대학교에 합격하니 세계적인 화가가 되겠다는 다짐에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단순하지만 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든지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였고 그게 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단지 대학을 위한 공부와 자신의 꿈을 위해 하는 공부는 깊이와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겪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항상 크고 대담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느새 점점 목표와 닮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준 3학년 미술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제 꿈을 믿고 지지해주신 부모님께 가장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꼭 꿈을 찾아 그것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예창작과 이인서**(중앙대·명지대·추계예술대 합격)

저는 문학 특기자로 지원한 세 개 대학의 합격증을 거머쥐었습니다. 3년간 전국 곳곳 백일장을 돌아다니며 쌓아온 수상실적이 대학 합격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독과 다작을 반복하며 삼년간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백일장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면 작품을 복기하며 비수상의 이유를 찾고자 했고, 마음을 다스리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마지막 한 방의 기적을 상상하며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날도 많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만이 길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학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주신 김다미 선생님, 늘 따끔한 조언으로 정신을 깨워주신 김유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이 제 삶의 단단한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저를 믿어주신 김현우 선생님, 그리고 긴 여정을 함께 버텨준 소설 A파트 친구들 고맙습니다.



**음악과 이예성**(중앙대 합격)

중앙대학교라는 훌륭한 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안양예고의 환경이 저를 이렇게까지 성장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전공시간, 학교 후 개인 레슨을 통해 끊임없는 연습을 했습니다. 내신 또한 신경 쓰며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저만의 목표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연습실 인근에서 자취를 하며 새벽 5시 30분 알람으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안양까지의 통학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의 반복이었으나 꿈을 이루기 위해 학교생활에 충실히 참여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싸움인 '반복되는 연습'이 저를 항상 시켰고 수시에 합격하는 기쁨까지 누리게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 또한 꾸준한 노력과 연습으로 어렵고 힘든 입시를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컴퓨터실 재정비와 화장실 공사 완공

“질 높은 환경, 더 나은 학교생활!”



본관 1층 컴퓨터실이 새롭게 재정비되었다. 질 좋은 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컴퓨터의 전체 프로그램을 교체했다. 이로써 학생들이 컴퓨터실을 사용하기에 더 편리해지고 편의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학교 내 화장실 공사도 완공되었다. 화장실에는 전신 거울과 비데, 세면대 등이 새롭게 설치되었다. 완공된 화장실은 학생들에게 더욱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 시설을 통하여 더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

글 · 김예은/사진 · 김도예

제36대 학생자치회 임원 후기

“학생자치회를 마치며”



학생자치 회장 정 태 영(연극영화 · 2학년)

안녕하십니까 36대 학생자치 회장 정태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기간을 생각하니 아쉬우면서도 한편으로 후련하기도 합니다. 미숙했던 부분도 많았는데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믿어주신 학우들에게 감사드리고 옆에서 함께 고생한 임원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대표로 행동하면서 제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배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항상 성찰하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모두와 함께 나아가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의 뒤를 이어줄 37대 학생자치 회장과 임원들 역시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자치 부회장 박 효 정(연극영화 · 2학년)

안녕하십니까 36대 학생자치 부회장 박효정입니다. 지난 한 해는 저에게 감사한 일들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달릴 수 있다고 자신하던 아이가 넘어졌을 땐, 일어나기까지 오래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겨우 일어났을 땐 걸음마부터 다시 배워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학생자치회 활동을 하며 저의 부족함에 자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선생님들, 친구들, 선배들이 묵묵히 격려해주었기 때문에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혼자 멀리 돌아와야 할 길을 학우 여러분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왔습니다. 이제 부회장으로서의 직책을 마치고, 여러분을 지지하는 안양예고의 한 학생으로서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View 편집장 후기

“VIEW를 마치며”



View 편집장 최 연 희(문예창작 · 2학년)

어느덧 2019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마침내 마지막 View가 완성되었습니다. 새하얀 백지 위 안양예고의 한 계절을 담아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던 날들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계절마다 찾아오는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 글을 쓰고 있자니 부원들과 모여 앉을 틈 없이 바빠 포장하고, 쉬는 시간이면 교정을 뛰어다니며 취재하고, 어떤 때는 꼬박 밤을 새워 통편을 만들던 지난날이 떠오릅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던 선생님, 많이 서툴렀던 저를 믿고 따라준 모든 부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처음 우리의 힘으로 탄생한 View가 많은 사람에게 전해져 읽힐 때의 벅차오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View 편집장으로서 보낸 일 년이 언제나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View를 읽는 여러분도 행복한 한 해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View의 앞날에 무한한 응원을 보냅니다.

학사일정

제35대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12월 20일(금)
제12회 독서퀴즈대회	12월 20일(금)
제13회 수상작품발표회	12월 24일(화)
방학식	12월 24일(화)
개학식	2월 6일(목)
종업식	2월 13일(목)
제35회 졸업식	2월 14일(금)

학과일정

연극영화과	제6회 뮤지컬 콘서트	12월 20일(금)
	제23회 연암영화제	2월 7일(금)
	제50회 졸업공연	2월 12일(수)~2월 13일(목)
무용과	1차 개별작품오디션	12월 24일(화)
	제5회 겨울무용발표회	1월 31일(금)
미술과	제5회 방과후학교 작품전	1월 29일(수)~1월 31일(금)
음악과	송년음악회 <동행>	12월 18일(수)

지도교사 : 윤이정

편 집 장 : 최연희(2년) 부편집장 : 김다은(2년) 교정부장 : 이성은(2년) 사진부장 : 황인성(2년) 기획부장 : 김가연(2년) 연락부장 : 박주원(2년)

서기 : 오지훈(2년) 사진위원 : 이수(2년), 성은제(2년), 김도예(1년), 유민주(1년), 허정현(1년)

편집위원 : 엄가은(1년), 홍지수(1년), 김영빈(1년), 김예은(1년), 김윤지(1년), 임민지(1년), 안다경(1년)